

영암 월출산서 전국 국립공원 매력 만나보세요

다음달 1~3일 월출산국립공원박람회...생태관광 활성화 모색 에코 음악회·국제학술세미나 등 전시·체험·판매 다양한 행사

영암군이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영암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 국립공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4 영암 월출산국립공원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대한민국 생태환경 지킴이, 월출산 달빛 남녀들이'라는 주제를 다채롭게 녹여내 국립공원 생태관광 활성화와 월출산국립공원의 자연·생태·문화 가치 전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취지로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박람회는 공원문화와 기획, 전시, 체험, 부대행사, 판매 행사로 나눠 진행된다.

판매 문화행사는 첫째 날 '월출산'과 개막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된 개막행사로 문을 연다. 이어 '에코 음악회'에서는 김창완 밴드, 이젤, 류담 보이시 등이 출연해 관객들을 맞는다.

네차례 진행되는 '푸른 음악회'는 다양한 장르의 인디 뮤지션이 나와 다채로운 음악을 들려주

다. 3일째 토크 콘서트는 자연주의를 표방한 친환경 연예인 1호 박진희 씨가 친환경, 환경보존 등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는 내용이다. 같은 날 폐막 행사 '포레스트 뮤직 콘서트'에서는 박람회 하이라이트 영상을 상영하고, 가수 허각 등을 초청해 무대를 꾸민다.

기획행사는 둘째 날 트로트가요센터에서 국립공원 브랜드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는 '국제학술 세미나'가 열린다. 같은 날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기찬빛길 걷기대회', 청년 마을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파크 캠프'도 시작된다.

셋째 날에는 우수 산악인을 발굴하는 산악인의 축제 '제56회 대통령기 전국 등산대회' 월출산 일대에서 진행된다. 이동탐방안내소는 숙리산 기마대, 계룡산 탄소중립홍보 등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부스가 마련된다.

전시행사로 국립공원 홍보·체험관, 주제존·테마

존, 사진전이 열린다. 특히, 주제존에서는 전국 국립공원 깃대종과 주요 관광지가 소개되고, 테마존에서는 깃대종 상징 조형물과 함께 사진을 찍을 기회가 제공된다.

대한민국 23개 국립공원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체험관, 초대형 에어바운스에서 즐기는 액티브 어드벤처, 박람회장 이곳저곳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월출레인지어, 하늘에서 바라보는 월출산 스키이발론 등 다채로운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해 박람회장을 찾는 가족동반 관람객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대행사는 '달빛뮤직 페스티벌' '영암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하정웅미술관 특별전 월출산 달이 피다'가 열린다.

판매행사는 산악용품 전시·판매장, 국립공원 굿즈 팝업스토어, 국립공원 명품마을 농·특산물 마켓, 영암 굿즈 판매숍이 운영된다.

양동채 영암군 환경기후과장은 "전국의 모든 국립공원을 한곳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2024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범 운영하는 '완도 관광택시'.

관광택시 반값에 타고 완도 여행하세요

다음달 15일까지 시범 운영

완도군이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완도 관광택시'를 시범 운영한다.

'완도 관광택시'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택시기가 문화해설을 곁들여 관광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완도 관광택시 운영 요금은 기본 2시간에 5만원이며 11월 15일까지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3시간에 7만원, 5시간에 10만원, 8시간에 14

만원이며 요금의 50%는 완도군이 지원한다.

완도 관광택시는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완도군은 관광택시 운영 기사를 대상으로 친절 서비스와 관광안내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진행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완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택시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남군 브랜드 쌀 '땅끝햇살' 중국 수출길...20t 선적

전남 10대 고품질 쌀 상하이 등 판매

해남군은 최근 브랜드 쌀 '땅끝햇살' 중국 수출을 위한 선적식(사진)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수출된 쌀은 20톤 규모, 5000만 원 상당으로 중국 상하이로 수출돼 11월 중순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선적식에는 김계열 농업 해남군지부장, 윤치영 육천농협 농협장, 정지안 상하이전일무역유한공사 대표 등 1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땅끝햇살'은 해남군을 대표하는 공동 브랜드 쌀로 토양검사를 통해 재배지지를 선정한 후 철저한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되는 것은 한편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해 관리하고 있다.

밥을 지었을 때 찰진 식감과 식어도 잘 굳지 않는 본래 맛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으로 올해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명원관 해남군은 "쌀 소비 감소와 재고 과잉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쌀의 해외 판로를 확대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국내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제고를 위해 쌀 수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진도오색쌀과자 '우수디자인 상품' 선정

정부 인증 'GD마크' 부여

진도군은 '진도오색쌀과자'가 우수디자인(Good Design)상품 선정 7개 분야 중 시각/정보 디자인 부문에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우수디자인상품 선정은 우수디자인 상품 개발을 촉진, 국가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선정된 상품에는 정부가 인증한 'GD마크'를 부여한다.

GD상품으로 선정되면 ▲정부 인증 우수디자인(GD) 마크 사용 ▲호주 굿디자인(GDA) 마크 사용 ▲조달청 우수제품지정(가구 제품) 심사 가점 및 우수조달공통상표 물품 지정대상 심사 가점 우대 ▲특허청 디자인등록출원 우선 심사 대상 지정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생활명품 신청 가점 우대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우수디자인상품으로 선정된 진도군 녹색원농조합법인의 '진도오색쌀과자'는 포장지 안쪽에 운



진도군 녹색원농조합법인의 '진도오색쌀과자'.

림산방, 세방나죽, 국립남도국악원 등 진도의 주요 관광명소를 활용한 주사위 게임을 넣어 소비자들이 직접 만들고 체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또 일회용 패키지에 그치지 않고 놀이에 활용하거나 장난감 보관용 상자 등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감광, 재사용, 재활용의 3R(Reduce, Reuse, Resycle)을 실천하여 디자인했다.

진도군은 체계적인 마케팅 추진 및 포장재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GD상품 가점 부여 등 상품의 디자인적 가치를 보충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새마을금고 직원 기지로

5000만원 보이시피싱 막아

목포경찰 감사장 수여

목포경찰서 역전파출소는 지난 11월 5000여만원의 현금을 인출하려다 은행원의 기지로 보이시 피싱 피해를 예방한 새마을금고 유달지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사진>

피해자는 "말이 납치돼 있으니 5000만원을 달라"는 보이시피싱범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목포 중앙새마을금고 유달지점을 방문했다. 안절부절못하며 은행 안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피해자가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려 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보이시피싱 피해를 직감하고 보이시피싱 의심 안내를 했으나 이를 듣지 않자 계속해서 설득해 경찰에 신고조치해 피해를 예방했다.

이에 목포경찰서는 보이시피싱 예방에 이바지한 목포 중앙새마을금고 관계자에게 2명에 대하여 감사장을 전달했다.

현장 출동한 역전파출소 경찰관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의 말이 괴한에게 납치되어 있다며 5000만원을 요구해 급하게 새마을금고 유달지점



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출동경찰관은 딸의 신변을 파악, 딸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어르신이 보이시피싱범에 노출되었음을 알린 후 악성 앱 제거 프로그램 등을 설치 5000만원 인출을 막고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했다.

목포중앙 새마을금고 김영록 유달지점장은 "직원들에 대해 보이시피싱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역전파출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상 목포경찰서장은 "목포시민의 민생범죄 보이시피싱범과 근절과 예방으로부터 안전한 목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목포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착공...2026년 완공

생활폐기물 안정적인 처리

목포시가 24일 목포환경에너지센터 내 자원회수시설 부지에서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착공식을 갖는다.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은 생활폐기물의 적재립 금지 정책 시행(수도권 2026년, 비 수도권 2030년)과 광역 위생매립장 포화(99% 이상)로 인해 위생매립장의 지속 사용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추진됐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978억원, 일처리량 220t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지난 2018년 9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받아 2020년 1월 한국개발연구원 검토 결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이 확보

됐다.

이후 2022년 3월에 사업시행사 지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적격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쳤다.

자원회수시설은 오는 2026년까지 시설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단순한 폐기물 소각 시설이 아닌 폐기물로부터 열 에너지를 회수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인접 폐기물처리시설 간 연계 활용도가 높은 시설로 목포시 폐기물 처리 백년대계 정책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착공식에는 박홍률 목포시장을 비롯 전남도, 신안군청, 사업시행사, 지역주민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조감도.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착공식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건강권 확보, 시설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최근 전라남도(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 주관하는 '2024년도 전라남도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에서 전남도교육감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청소년참여위 전남도교육감상 수상

전남도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신안군은 신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최근 전라남도(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 주관하는 '2024년도 전라남도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에서 전남도교육감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라남도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는 전남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해결 방안을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발굴·제안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안군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god's youth' 팀이 참가해 '농어촌 버스터미널 폐업 방지 방안' 정책을 제안했고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청소년들 스스로 사회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하는 노력이 큰 성과로 이어졌다"라며 "청소년 활동에 더욱 관심을 두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